



1. 연구의 개요

□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

-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혁신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, 지역대학, 혁신도시 입주 기업 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
-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주요과제 중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
- 본 연구는 지역상생발전 관점에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필요성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둠

□ 연구의 범위 및 방법

- 연구의 범위
 - (공간적 범위) 2018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, 주변지역은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광역 시·도 전체를 검토
 - (시간적 범위)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정책 방향이 제시된 2003년 이후부터 현 정부의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를 1차적 범위로 설정
 - (내용적 범위)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필요성 관련 이론 검토, 지역대학 관련 정책 검토,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특성 분석 및 유형화, 사례조사를 통한 연계실태분석 실시
- 연구의 방법
 -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조사, 통계자료 분석, 원고위탁을 활용한 외부전문가 협동연구, 혁신도시 내 산학협력정책연구소,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, 이전공공기관 종사자, 공무원 자문 등을 활용

2. 대학과 지역발전 관련 이론

□ 대학과 지역 간 연계 강화 배경

- 대학은 본연의 교육, 연구, 봉사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성장 및 사회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지역발전에 기여
- 정부와 관련 중앙부처는 지역혁신을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상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 거점화 추진
- 대학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주변 도시나 지역과 연계를 맺고 특성화하는 ‘지역화’의 필요성 증대

□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

- (전통적 역할) 대학은 지역을 위해 지식을 생산하는 ‘지식공장’이나 보유 지식을 적극적으로 상업화하는 ‘기업가적 대학’ 등으로 역할을 해옴
- (새로운 역할)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과 지역 간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, 이에 따라 대학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, 지자체 등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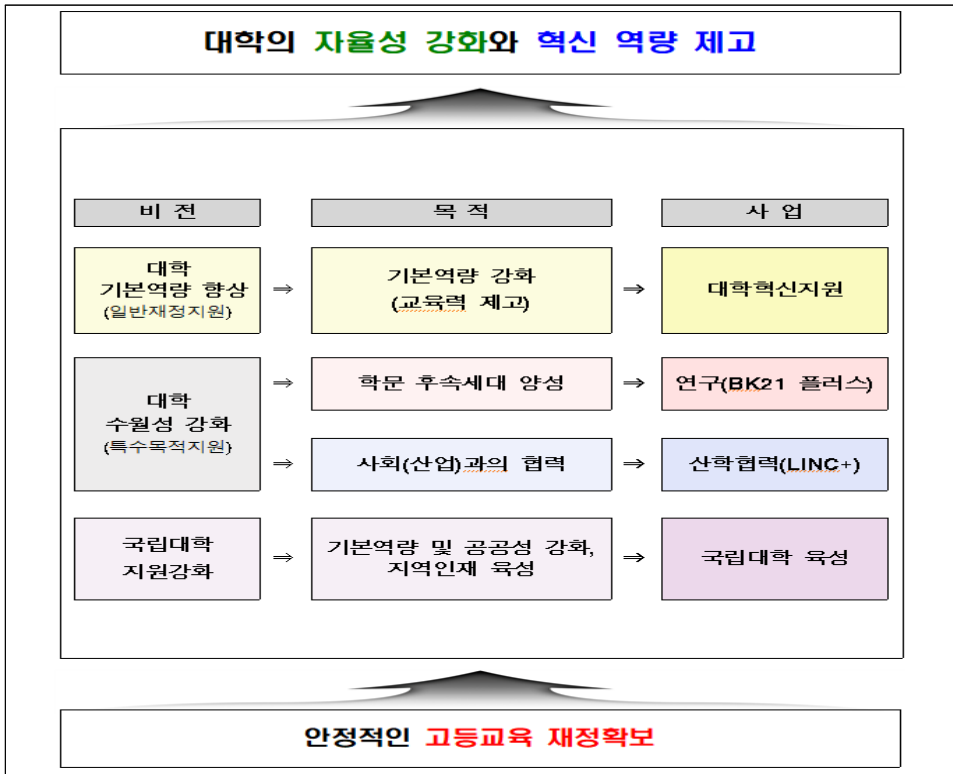
3. 지역대학 및 혁신도시 관련 정책 현황

□ 지역대학 관련 정책

- 지방대학 역량강화
 -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
 -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개편된 재정지원사업은 3개 유형(국립대학, 일반 재정지원, 특수목적지원) 및 4개 사업(국립대학육성, 대학혁신지원, 산학협력, 연구지원)으로 구성
 -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강화 및 지역 강점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, 국립대학의 지역 내 교육, 연구, 혁신거점 역할을 확대

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

그림 1 | 문재인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비전 및 목표



자료: 교육부 2018a,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(안). 3.

-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 정책
 - (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)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선발된 45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분야 추진
 - (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)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

- 지역인재 취업지원
 - (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)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, 선정된 컨소시엄별 사업주체는 각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전공 등을 개설 운영할 계획

□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대학관련 정책

-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중 산·학·연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역할이 증대
 - (개방형 연구실) 이전공공기관과 산·학·연 공동 시제품 및 디자인 팩토리, 테스트베드 연구시설 및 장비, 창업·생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
 - (산학융합지구 및 산업단지 캠퍼스) 혁신도시 및 인근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연구소 등이 입지 할 수 있는 산학 융합지구를 지정하여 산·학·연 R&D 협의체 비즈니스 협력모델 발굴
 - (오픈캠퍼스)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생 대상의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
 - (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)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기업 현장 실습을 거쳐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
 - (일학습 병행제)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술과 직무능력을 교육받은 후, 7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능력을 쌓는 제도
 - (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) 2015년 혁신도시법 상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신설되었으며, 2022년까지 30% 채용률 달성을 목표로 함

4.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사업 특성분석 및 유형화

□ 분석의 목적 및 방법

- 10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중 대학을 포함하는 사업 총 127개 사업 계획을 선별하여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현황을 분석
 -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목적, 대상, 주체를 검토하고 활용되고 있는 정책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대학의 역할을 제시
 -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수준 검토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

□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사업 분석

- (연계 목적)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
- (연계 대상)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에 주로 참여
 -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, 부산, 울산, 전북,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이나 지역 주민과 전혀 관련되지 않고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만을 추진
- (연계 주체)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대학 재학생이 가장 중요한 참여자로 나타남
- (연계를 위한 정책 활용)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으로 오픈캠퍼스 사업이 가장 많이 활용
 - 혁신도시 내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대학의 일부 기능을 혁신도시에 유치하거나 신규로 설립을 추진하기도 함

표 1 |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 정책 활용(계획) 현황

혁신도시	인재양성				산학협력		사회봉사
	오픈 캠퍼스	지역 선도대학육성사업	계약학과	대학유치 및 설립	오픈랩	산학융합지구	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
부산	●	●	●	●	●		
대구	●	●				●	
광주전남	●			●	●	●	
울산	●	●		●			
강원	●		●	●	●	●	●
충북	●	●			●	●	
전북	●	●		●		●	
경북	●	●	●	●		●	
경남	●		●	●	●		
제주	●				●		

자료: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□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 유형화

- (유형화 기준) 지역대학과 혁신도시의 연계 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으며, 지역대학이 연계하는 혁신도시 내 주체는 이전공공기관과 기업만 고려
- (유형화 결과) 이전공공기관 연계 여부, 혁신도시 내 기업과의 연계 여부,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동시 참여 여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-지역대학 연계형, 이전공공기관-지역대학, 기업-지역대학 연계형, 이전공공기관-기업-지역대학 연계형으로 분류

5.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조사

□ 사례조사의 목적 및 방법

-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추진 상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강원 및 경남 지역 관계자 면담 조사 등을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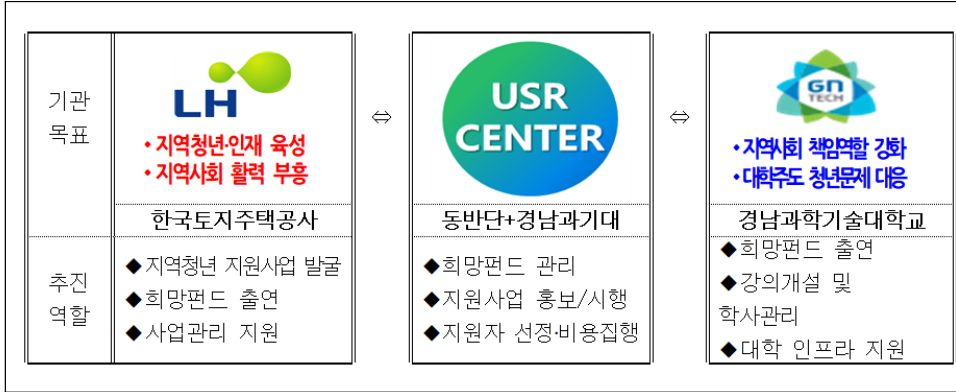
□ 사례지역별 혁신도시-지역대학 현황

- (강원혁신도시) 의료기기·바이오·신소재·관광산업 등 생명 관련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인근에는 5개의 4년제 대학교가 위치
- (경남혁신도시) 기반시설, 산업지원, 기타 기능의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며, 인근에는 7개의 대학이 입지

□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

- (강원혁신도시)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, 공공기관 임직원 재교육 및 평생 교육, 이전공공기관별 지역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학이 참여
 - 우수한 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대학 공동캠퍼스를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고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전공 및 비전공 교육 과정 개설을 추진 중
 -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대상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계약학과를 운영
- (경남혁신도시) 이전공공기관 인재양성, 지역인재 육성,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대학이 참여
 - 이전공공기관 인재양성을 위해 오픈캠퍼스,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용,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,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
 - 지역청년 취·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, 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

그림 2 | 인재양성을 위한 경남혁신도시 지역청년십펀드 조성사업 추진 모델



자료: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부자료.

- 경상대 등 지역대학이 경남혁신도시 특화분야인 항공우주산업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

□ 산학협력을 위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

- (강원혁신도시) 산학협력사업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, 개방형 연구공간(오픈 랩) 조성, 디지털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
- (경남혁신도시) 개방형 연구공간(오픈랩) 사업을 통해 공공부품 및 첨단 소재 관련 장비 이용, 인력양성, 공인시험인증 지원 등의 사업 추진

□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 실태

- (강원혁신도시) 지역상생협의체 운영, 도시재생대학 운영, 공공기관 연계 사회문제 공헌 사업에 대학이 참여
- (경남혁신도시) 발전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, 문화거리 조성 사업,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형의 사회공헌사업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

□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 제약요인 및 한계

- (사업추진 초기 단계로 낮은 연계 수준)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규

사업은 많으나, 추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직 낮은 수준의 협력을 보임

- (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인재 양성 중심의 연계)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이 대부분 인재양성 목적의 사업이며, 공동연구·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
- (지역대학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)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이 늘어나고 있으나,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
- (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학이 참여)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
- (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 미흡) 강원혁신도시에서는 특화발전분야인 디지털헬스케어에 특화된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역대학의 역할이 제한적이고, 경남혁신도시에서는 특화분야인 항공부품산업분야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및 입주기관의 연관성이 낮아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산학협력의 여지가 적음
- (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) 성공적인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통채널 확보와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나, 아직 기관 간 연계활동이 초기단계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

6.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

□ 기본 방향

-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및 대학 등 연계 주체들이 연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이에 따른 제약요인의 극복 전략 마련이 필요

□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

- (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) 지역대학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양성한 인재를 혁신도시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

당하나, 아직까지 지역대학의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이전공공기관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역할 제고가 필요

- (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의 구상과 활성화)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특화발전 부문 간 연관성에 따라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에 차이가 있으며, 혁신도시의 지역 거점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의 구상과 활성화가 필수적
- (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) 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로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, 연계·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으로 혁신도시-지역대학 간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

□ 혁신도시-지역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

- (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제고 전략)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재교육 과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인력양성지원, 지역인재 채용 대상의 공간 범위 확대, 중소 규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체계 구축
 -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재교육과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,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참여주체를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특화발전 관련 기업으로 확대
 - 시도별로 지역인재 채용 대상 졸업생 규모나 공공기관 채용규모 등이 상이해 광역화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광역 시도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권역 확대 노력 필요
 - 독자적으로 오픈캠퍼스를 개설하기 어려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기관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
- (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관련 연계사업 활성화 전략) R&D, 인재양성, 규제특례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과 혁신도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 대학간 산학협력 체계 마련
 - 혁신도시의 거점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R&D, 규제특례 등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정책수단을 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
- (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 체계 마련 전략)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,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거버넌스 구축

- 예산 제약 등으로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상 이전공공기관 및 입주 기업과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종합적인 사업추진 로드맵 마련
-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

7. 결론 및 향후과제

- 혁신도시를 지역의 혁신 및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·군·2정책 추진으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로서 의의가 있음
- 지금까지 국가 및 지역정책 차원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산·학·연·관 협력 관점에서 대학의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지역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혁신도시 발전정책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
-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사업을 인재양성, 산학협력, 지역문제 해결 등의 연계목적과 연계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화 분석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의 참여 모델 설정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
-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이외에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지역대학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
- 후속과제를 통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연계 사업이 실제로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